월/요/광/장

무각사와 대인시장

김선정

광주 도심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장소들을 전시에 사용하고 싶어 광주시내와 주변부의 여러 곳을 리서치를 했다. 처음에는 광주의 옛 국군통합병원을 전시장로 사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군이 전시장으로 개방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시장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 안에서 작가들이 사전에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전시장으로 옮겨 보여주는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 제약 없이 여러 장소와 방법을 생각하지만 현실에 부딪치면 허가나 예산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기도 하다.

광주의 구도심은 비엔날레 기간 중에 사용 가능한 장소로, 그 공간 안에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어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광주극장이나 대인시장은 광주가 도시로 발전해나가는 시간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현대미술 작업들을 통해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비엔날레 전시장뿐만 아니라 광주의 여러 장소를 전시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객들이 도시의 여러 곳을 전시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지나다니면서, 작가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 도시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인시장은 여러 작가들이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 시장의 상인과 협조가 잘되는 장소여서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비엔날레에 초대된 작가뿐만 아니라 대인시장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소개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전시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광주극장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민간 극장으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 광주극장에서는 앨런 세큘러 & 노엘 버치(Allan Sekula & Noel Burch)의 비디오 작업과 크리스 마커(Chris Marker) 감독의 영상 작업이 매일 번갈아 가며 상영된다. 그리고 극장의 사택은 오래동안 비어져 있던 곳으로 그 장소에서 남아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재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작업공간이자 전시장이 되었다.

그 동안 필자의 다른 전시에서도 구 서울역사나 경복궁 옆의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짓고 있는 구 기무사 터가 비워져 있고 사용되지 않을 때 전시장으로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 장소들로 활용된 집, 극장, 가게 등은 원래 각각의 기능이 있었으나 도시가 발전되면서 혹은 도시의 중심부가 옮겨가면서 사용이 중지되거나 비어있는 상태가 된 곳들이었다. 비어있는 공간에는 그 장소가 사용되던 기간의 기억들과 흔적이 남아 있다. 멕시코 출신의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는 광주극장 옆의 사택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발견한 창틀이나 버려진 물건들을 재사용해 조각을 만들었다. 광주에 3주간 머물며, 워크숍을 통해 작가가 광주에 대해 배운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작가는 광주극장의 역사, 광주 중심부의 경제적인 변화, 학생운동,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 등을 배웠다.

중국 출신으로 비엔나로 어린 시절 이주한 준 양(Jun Yang)도 대인시장의 스튜디오에서 3주간 머물며 대인시장에서 작업하는 작가들과 잡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통 시장인 대인시장에 200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광주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가들이 모여 작업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현재는 30여명의 젊은 작가들이 작업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대안공간인 미테우그로에서 여러 예술 이벤트가 벌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시장의 상인과 예술가들이 협조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다른 곳에서 찾아 보기 힘든 모습이다.

서도호는 광주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들의 기억이나 흔적을 보여주는 '탁본 프로젝트'를 광주의 작가들, 학생들과 진행했다. 1980년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었던 작가는 언론 통제에 의해 신문 기사들이 실리지 못하고 하얀 공백의 공간으로 남은 채 배달되었던 경험과 기억이 '탁본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었다.

여러 예술가의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다른 작업으로 만들어져 광주의 곳곳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광주의 어떤 장소의 이야기가 다른 경로로 전해진다. 작업들을 통해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도시의 모습이나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알게 된다.

현대미술은 사람들의 삶의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번 2012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에서 가보지 않았던 장소들을 방문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나로호 연기' 성공발사 디딤돌 삼아야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나로호는 당초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께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헬륨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사대와 1단 로켓 연결부위에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우리의 우주진출 꿈이 또 좌절된 것이다.

이날 나로호 발사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은 물론 성공발사를 기원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나로호 발사연기는 이번이 8번째다. 그만큼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해도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변수가 많다. 최종 점검에서 모두 정상 작동해 발사 15분 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경고음으로 발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발사연기와 원인, 재시도 시기 등 모든 과정이 러시아의 통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각에선 지난해 2차 발사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3차 발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나로호의 이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발목을 잡은 것 역시 러시아산 링모양의 고무 실(seal)로 밝혀지면서 러시아와의 나로호 공동 개발에 대한 여러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나로호는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다. 비록 1, 2차 발사에 실패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사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연기가 오히려 성공적 발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100억원대 횡령, 지자체는 대체 뭘 했나

일선 지자체에서 공금을 다루는 회계·경리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의 감시·예방 기능은 극히 허술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여수시에서 터진 공무원의 횡령액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8급 김모(47)씨의 공금 횡령액은 현재 밝혀진 70억 원대 보다 크게 늘어 100억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횡령 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인데다 6년 이상 공금을 만지면서 연간 190억 원대의 현금을 주물러 왔기 때문이다. 횡령액이 전국 공직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다.

또 완도군 공무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공금 5억여 원을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남군 공무원 B씨도 사회복지비 10억 원을 빼돌리는 등 각 지자체에서 대형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비리를 차단할 시스템이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시·군에 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토록 했으나 여수시 등은 이를 외면한 채 세입·세출을 담당 직원이 수기(手記)로 기록해 왔다고 한다. 전산관리가 아니라 수기로 한 만큼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 공금 횡령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남도의 시·군 종합감사 역시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들 사건 모두 감사원과 경찰청에 적발됐다는 사실이 이의 방증인 셈이다. 회계·경리직에 6년 이상 업무를 맡도록 한 것도 상식 이하의 일이다.

전남도와 지자체는 당장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영구 퇴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계·허가 부서 등 담당자의 순환근무 의무화, 내부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특별기고

이메일 공해 그리고 종이편지의 그윽함

한승원

나는 어린 시절부터 편지 쓰기를 어려워하곤 했다. 이메일이나 종이로 쓰는 편지나, 일단 편지라는 것은 나의 인격과 품위와 교양과 정서를 훤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번 잘못 써서 보낸 편지는 친구 사이에, 애인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혹은 업무상으로 대하는 너와 나 사이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나는 편지를 되도록 밤에 쓰지 않는다. 밤에 쓰면 흥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 본위일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고, 상대방의 정서나 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밤에 써놓은 종이 편지는 봉투에 넣어 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었다가 아침에 냉정한 가슴으로 새로이 세세하게 읽어본 다음 부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결정한다.

편지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고, 나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진술하는 의사이므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대개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냉정한 가슴으로 읽고는 찢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메일은 컴퓨터 자판으로 쓴 다음 다 완성이 되었다 싶으면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읽어본 다음 바로 '보내기'를 클릭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세심한 사람은 물론, 다른 글쓰기 공간에다가 쓰고 지우고 또 쓴 것을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을 이메일 쓰기에 옮겨 보내기를 클릭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종이편지와 달리 성급하게 쓴 이메일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내버린다. 그리고는 후회하게 된다.

모든 인간사는 해내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뜸들이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쌀을 물과 함께 솥에 넣고 열을 가하여 끓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뜸을 들여야만 밥이 맛있게 익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메일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이 없고, 또한 그윽한 심사를 느낄 수 없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편지를 타이핑해서 보내지 않고, 일부러 육필로 종이에 정성스럽게 써서 봉투에 담아 상대편 주소와 성명을 쓴 다음 우표를 손수 붙여서 발송한다. 편지 종이에 연필이나 만년필이나 사인펜이나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는 쓴 사람의 숨결과 체온과 체취와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한다.

요즘 사람들은 종이편지를 멀리하고 이메일을 주로 사용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 아주 급한 사무적인 편지인 경우는 어찌할 수 없이 간편하고 빠른 이메일을 사용한다. 한데 오래 생각해야 할 사안, 어려운 상대에게 정중히 올려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편지를 사용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의 폐해를 알아야 한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는 간편함과 빠른 디지털적인 삶의 한 방편인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전남광주 우정 당국에서 백만인 편지 쓰기 운동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처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느림의 삶을 잃어버렸다. 빨리빨리 문화는 정머리 없는 경솔한 사람을 만들고, 천천히 생각하며 느리게 사는 문화는 그윽하고 사려 깊고 향기로운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문화, 하다못해 우체국에 들어가 엽서 한 장을 사서 친지에게 진정어린 사연을 담아 보내는 느림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만일, 비밀스러운 사연을 담아 보내고 싶으면 봉함엽서를 달라고 해서 우체국 책상에서 써서 우체통에 넣는 낭만을 즐기는 호사를 누릴 필요가 있다. 봉투 속에 넣고 예쁜 우표를 붙여 보내는 편지와 암호 같은 사연의 엽서와 내밀한 봉함엽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가슴 저리는 낭만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정과 사랑, 그 얼마나 경솔하고 멋없는 성급한 연애인가.

〈소설가〉

법조칼럼

재판부와 피고인 사이에서

임주영

필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다. 필자가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후 제일 먼저 다짐했던 것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무조건 많이 들어주고, 그들의 의사가 재판부에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요즘엔 필자와 같은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들도 개별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열심히 변론하시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역할 자체가 일반적인 국선변호에 비해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보다 충실한 국선변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국선변호를 하는 과정에 변호인으로서의 소송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더라도 유죄의 심증이 높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까지 변호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할 때가 있다. 유죄가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국선변호인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낭비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선입견으로 인해 자칫 충실하지 못한 변호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선배변호사가 술에 취해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했다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이 자신을 주취폭력자로 몰아세우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해 법률적인 조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숙제를 던져주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과연 국선변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담변호사로 위촉될 당시 가졌던 마음가짐이 아직 느슨해지진 않았지만, 국선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 셈이다. 한 사건 한 사건 임할 때마다 피고인과 재판부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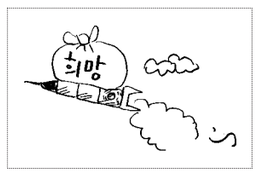
재판부를 생각하면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도와 재판부의 재판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에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들의 억울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됐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비단 필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선변호인 나아가 사선변호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소송관계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재판'을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법조인의 '책무' 또는 '사명'이라 여긴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할 수 있다. 피고인의 거짓말이나 감언이설에 휘둘려 불필요한 방어를 하는 것은 물론 지양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교감 속에 형성된 변호인의 방어 행위에 담긴 뜻을 재판부와 검찰이 이해하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바람이다.

〈변호사〉

無等鼓

땅이름



동북아의 허브(Hub)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인천시 중구 영종도(永宗島)에 문을 열었다. '긴 마루'를 뜻하는 그 곳에 길다란 활주로가 놓이고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된 것이다. 원래 지명이 '제비가 많은 섬'이라는 뜻의 자연도(紫燕島)였던 점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11월 개항한 호남권 신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구름을 바라본다'는 뜻의 망운면(望雲面)에 자리잡았고,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위치한 양쪽 동네의 원래 이름은 비상리(飛上里)와 비하리(飛下里)였다고 한다.

우리 고유의 땅이름에는 이처럼 앞날을 내다보는 선인(先人)들의 예지력이 담긴 것이 많다. 지명 연구가들은 이같은 땅이름에 그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반영돼 있다고 본다. 풍수지리의 영향도 크다.

지명과 오늘의 현실이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는 경우는 더 있다. 광양시 태금(太金)면의 '쇠섬'은 매립된 뒤 광양제철소가 들어섰다.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유조선부두가 조성된 곳의 옛 지명은 유두소(油頭所)였다.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중촌마을은 쌍둥이가 많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데 주민들은 '쌍태산(雙胎山)' 또는 '쌍봉산(雙鳳山)'의 정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빛고을' 광주에서 정의의 횃불이 자주 타올라 민주화운동의 상징도시가 된 것이나 광(光)산업 선도도시가 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의 땅에서 발사'하기 위한 우주개발의 전초기지 나로우주센터가 '높이 흥한다'는 고흥(高興)에 들어선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 도전에 나선 나로호 3차 발사가 연기됐다.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러시아산 고무실(seal) 파손 때문이란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기 보다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한 성공적인 비상으로 국민에게 흥(興)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

전남·북 국유림에 산양삼 재배 육성해야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임지(산)이다. 특히 우리 전라남북도의 산야는 그 청정함과 비옥함이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다. 여름 폭우의 피해를 막으려면 산림보존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고가의 산삼이다. 한반도 중부 이남은 산삼 재배의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기까지 하다.

산삼은 자연산인 '야생삼'과 야생과 같게 기르는 '산양삼'으로 분류된다. 자연 조건에서 씨만 뿌려 20년 이상이 되면 야생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식으로 이름 붙여진 장뇌삼(재배삼으로써 뇌가 긴 것)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 재배된 산삼을 산양삼이라고 부르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써 우리 전라남북도의 경험 많은 심마니들을 전문가로 채용해서 이들에게 산양삼 재배 적지 생태연구와 산양삼을 기르게 해서 육성한다면 우수한 산삼종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양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효능을 인증하는 차원에서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자. 중국에서는 산양삼도 씨앗과 묘삼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것을 최고로 알아준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장뇌삼이나 묘삼을 수입해 재배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장 출하시에는 생산 이력 증명서를 발부해서 첨부하도록 하면 산양삼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런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육성한다면 우리나라 산양삼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국제적 신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라남북도의 대학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에 산양삼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산양삼 재배지로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산지 혹은 국유림과 공공 임야를 활용하되 산양삼 사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